로컬플러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제19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는 9일 회의를 열고 제194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0일가지 8일간 개최하고, 조례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채민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23건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17일~24일까지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여름방학 동안 본청, 사업소,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직장체험을 원하는 대학생일자리사업 참여자 40명을 1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1기(7월4일~7월29일)와 2기(8월1일~8월29일)로 기수별 4주씩 운영된다.

근무조건은 주5일 40시간 근무, 일급 48,240원, 교통비 3,000원, 주차수당,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참여자는 월 1,217,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참여 신청서, 재학(휴학)증명서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민생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보건소 수족구병 주의당부

군산시보건소 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족구병이 유행할 것에 대비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수족구병이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영유아 등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 회복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고열,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경제불황에 군산시 대표기업 '휘청'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인원 감축·조업 단축 등 단행 협력업체 타격

극심한 경제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시도 대표적 기업들의 경기지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산업단지 가동률은 군산국가산단 58.2%, 군산2국가산단은 77%에 머물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635개 업체의 가동현황은 군산국가산단이 177개 업체 중 15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건설중 18개 업체, 휴폐업 4개 업체, 미착공이 1개 업체로 나타났다.

군산2국가산단은 458개 업체 중 369개 업체만이 가동중이며, 건설중 48개 업체, 휴폐업 15개 업체, 미착공 업체가 26곳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 가동현황은 군산국가산단의 경우 운송장비 48%, 기계 41%, 석유화학 27%에 그치고 있으며, 군산2국가산단은 운송장비 74%, 기계 164%, 석유화학 49%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가동률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OCI 등 대기업 생산이 가속화 된 2010년 군산국가산단 89.9%, 군산2국가산단은 8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장 가동이 멈추다보니 고용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2014년 고용인구 1만 8,492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1만 6,795명으로 2천여명 가량 감소했다.

군산지역 산업단지가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기도 냉각기에서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OCI, 등 입주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조업 단축·긴축 재정 등을 단행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선업황의 부진으로 2010년 완공 당시 5천 700여명에 달하던 근로자가 3천 700여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현재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 수주 물량의 잔량은 연말까지 13척으로 대부분 올해 말 준공예정이어서 내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OCI도 군산공장도 현재 1교대로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불황은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최근 3년새 폐업신고를 한 식당수만 124개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놔도 10만~20만원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며 "임대료 주기도 빠듯해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 지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여성가족친화도시 발전 청사진 제시

평등·안전·참여 활성화된 익산만들기 환경조성계획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목표로 하는 익산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밝혔다.

시는 정헌율 시장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함에 따라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인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만들기'에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을 추가 진행한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가족이 행복한 일터 '가족친화인증제' 확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기존 55개 사업(75억 7,500만원)의 지속 추진과 함께 취약 밀집거주지역인 마동에 여성과 아동 및 노약자를 위한 위험지역 표시, 전봇대색칠하기, 빛 조명 밝기,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안전한 우리 동네 골목길 디자이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점차 확대 진행한다.

시는 공약사업인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영 부시장은 "지속가능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무추진단을 지정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1호 여성친화 도시에 걸 맞는 도시를 조성하고 나아가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사업' 신청·접수

만 35세 이상~65세 미만 오는 31일까지

군산시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나섰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6월부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자매도시 중국 진강시 쭈소밍 시장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진강시 조성 생태도시 내 건강식품산업단지 등 상호협력 제안

익산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진강시의 쭈쇼밍(朱曉明) 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익산시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중국 강소성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쭈쇼밍 시장 일행은 한국 내 주요그룹 방문과 새만금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매도시 익산시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쭈쇼밍 시장은 이날 식품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시설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차세대 한국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식품산업을 선도할 세계 수준의 식품전용산업단지로 소개했다.

2020년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세계 식품시장과 15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시장에서 식품클러스터는 한류 붐과 함께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식품 안정성에 힘입어 세계 식품 수출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강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식품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쭈쇼밍(朱曉明) 시장은 "한중 FTA체결 이후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진강시와 강소성에 위치한 식품 관련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진강시가 조성중인 생태도시 내 건강식품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호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농기센터, 원예농업 다각화 시범사업 추진

4개 분야 13개 사업 총 3억 3000만원 투입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는 원예농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소득작목 발굴 적응 시범, 친환경 재배기술 시범, 현장애로 기술 타개 시범, 첨단 신기술 보급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3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는 FTA에 대응해 원예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수입과일을 대체할 소핵과류 등 신규작목을 도입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친환경 양파 자동화 안전재배기술 보급 시범, 친환경 시설재배 병해충 종합방제관리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고추비가림재배 및 과수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섯 부산물을 이용한 단순가공 및 퇴비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기술 시범과 약용작물 자원개발 및 가공기술보급 시범 등의 신기술 신속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예분야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군산원예농업이 확고히 자리 잡고 경쟁력을 갖춰 원예농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